

1600만대 판매된 ‘갤럭시S10’, 5G시장도 접수한다

(3~5월 누적판매량)

삼성전자

5월 美 이어 英·中 등 공급 개시
‘갤럭시S10’ 시리즈 반응 좋아
5G 스마트폰 시장 선점 기대
폴드·노트 등 특화제품도 예고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갤럭시S10’ 시리즈가 전작 대비 좋은 반응을 얻으면서 5G 스마트폰 시장 선점에도 기대가 모인다.

3일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리서치에 따르면 갤럭시S10 시리즈는 3월 출시 후 지난 5월까지 누적 판매량이 약 1600만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3월 출시된 S9 시리즈의 같은 기간 누계 판매량 대비 약 12% 증가한 수치다.

삼성전자는 지난 3월 S10 플러스, S10, S10e 등 세가지 모델을 출시했다. 이중 S10 플러스가 42% 비중으로 5월 누계 기준 가장 높은 판매량을 기록했다. S10 플러스는 국내시장뿐 아니라



‘갤럭시S10 5G’.

사의 갤럭시S10 5G에 대한 가격 할인 지원도 판매량을 늘리는데 한몫했다.

갤럭시S10 5G로 미국 시장 진입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지난 5월 미국 이통사 1위 업체인 버라이즌에 갤럭시 S10 5G 공급을 시작했고, 6월에는 2·3위 업체인 AT&T와 스프린트에도 공급했다. 이밖에 영국, 스위스, 호주, 중국 등 기타 주요국에도 잇따라 공급을 개시하며 점차 글로벌 5G 시장 공략을 본격화하고 있는 중이다.

하반기에도 화면을 접었다 펼 수 있는 ‘갤럭시 폴드’와 ‘갤럭시노트10’ 등 5G에 특화한 신제품 공개를 예고하고 있다. 갤럭시폴드는 오는 7월 말 출시가 예상되지만 정확한 출시일은 나오지 않았다. 갤럭시 폴드는 국내에선 5G 모델로 출시될 전망이다.

‘갤럭시노트10’은 다음 달 7일 미국 뉴욕에서 공개한 후 같은 달 말이나 9월 초에 출시될 것으로 보인다. 갤럭시노트10도 국내에선 5G 전용으로 출시될 것으로 예측된다. 삼성전자가 국내 5G

시장을 집중 공략하겠다는 의지가 나타나는 부분이다.

갤럭시브랜드 탄생 10주년을 기념하는 작품인 만큼 갤럭시노트10에 대한 기대감도 높다. 삼성전자가 2일 발송한 갤럭시노트10 초청장에서 S펜을 강조한 것을 두고 또 다시 S펜의 혁신을 이룰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지난해 출시한 갤럭시노트9 S펜에서 삼성전자는 사진 촬영, 리모컨 기능을 하는 버튼을 새롭게 선보였었다.

이윤정 카운터포인트 애널리스트는 “최근 글로벌 판매 채널을 확대 중인 S10 5G의 판매량이 6월을 기점으로 두드러진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S10 시리즈 판매가 다시 상승세를 나타낼 것을 보인다”며 “S10 시리즈의 실적이 본격적으로 반영되고 화웨이 사태에 따른 유럽 등 일부 지역에서의 반사수해 영향까지 더해지면서 삼성의 2분기 판매량 전망을 밝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서윤 기자 yuni2514@metroseoul.co.kr



LG전자가 고객들과 함께 신가전 아이디어를 찾아나선다.

LG전자, 新가전 고객 자문단 모집

LG전자가 고객들과 함께 새로운 가전 시장을 찾아 나선다. LG전자는 4일부터 10일까지 ‘LG 신가전 고객 자문단’을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자문단은 오는 8월부터 6개월간 새로운 LG전자 생활가전을 기획하는 일을 한다. 매월 정기모임과 수시모임으로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구체화 하며, 제품 콘셉트와 디자인 평가도 병

행한다.

자문단은 서울과 수도권에 거주하면서 가전제품 구매와 활용에 관심이 많은 40명으로 구성할 예정이다. LG전자 홈페이지에서 지원 양식을 작성해 제출한 사람 중 선정할 예정이다.

LG전자는 자문단에 소정의 활동비와 함께, 우수 활동자에게는 신가전도 제공키로 했다. /김재웅 기자 juk@

현대오일뱅크 석유화학 공장 증설 2600억 투자

현대오일뱅크가 자회사인 현대케미칼과 현대코스모를 통해 아로마틱 석유화학 공장 증설에 총 2600억원을 투자한다.

3일 현대오일뱅크에 따르면 아로마틱은 혼합자일렌을 원료로 파라자일렌과 툴루엔 등을 생산하는 석유화학산업의 주요 분야다. 이들 제품은 합성섬유, 건축자재, 기계부품소재, 페트병 등을 만드는데 폭넓게 쓰인다.

현대케미칼은 1000억원 규모의 설비 보완 및 증설공사를 이달 중 마무리할 계획이다. 공사가 끝나면 아로마틱 원료인 혼합자일렌 생산능력은 연간 120만톤에서 140만 톤으로 확대된다.

현대코스모도 최근 1600억원 규모의 공장 증설 계획을 확정하고 상세설계에

착수했다. 내년 6월, 공사가 완료되면 대표 아로마틱 제품인 파라자일렌 생산 능력은 현재보다 18만 톤 늘어난 연간

136만톤에 이르게 된다. 글로벌 리서치 기관에 따르면 인도와 동남아 등의 경제성장에 힘입어 아로마틱 제품 수요는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오일뱅크 관계자는 “증설로 인한 연간 영업이익 개선효과는 860억원”이라며 “2022년 올레핀 석유화학공장인 2조7000억원 규모의 HPC(Heavy feed Petrochemical Complex)까지 정상 가동되면 전체 영업이익에서 석유화학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은 현재 25%에서 50%로 수직 상승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국가 기간산업, 외국인 투자 규제해야”

국회철강포럼 정책세미나

‘산업영향평가제’ 도입 제언

중국 기업의 무분별한 역내 진입으로 발생한 국내 산업의 피해를 막기 위해 기간산업의 경우 외국인 투자를 유치할 때 ‘산업영향평가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특히 대한민국 제조업의 기반이 되는 ‘산업의 쌀’ 철강업계는 중국 기업들의 국내 진출로 위협을 받고 있다.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포항남·울릉)은 3일 국회에서 ‘외국인 투자 법제 현안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국회와 정부, 산업체, 학계, 법조계 인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의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오현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 교수는 ‘산업영향평가제’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독립평가위원회의 평가를 토대로 국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포항남·울릉)이 3일 국회에서 열린 ‘외국인 투자 법제 현안과 개선방안’ 정책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

내산업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투자를 불허하거나 규모를 축소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제안했다.

한국국제경제법학회와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세미나는 최근 ‘청산강철’을 비롯한 중국계 거대자본이 잇따라 국내 시장 진출을 모색하는 상황 속에서 기존 국내산업 및 업계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법과 제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중국 ‘청산강철’이 부산시에 대규모 스테인리스 공장을 짓겠다는 투자 의향서를 제출하고 국내진출을 타진하고 있으며, 중국 ‘밍타이그룹’ 또한 광양에 알루미늄공장 건설을 추진 중이다.

이에 철강 및 알루미늄 업계에는 이들의 국내투자로 공급과잉이 심화되어 공멸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팽배하다. 우회수출로 인한 통상마찰 확대 우려와 더불어 저가제품 대량공급으로 국내업체를 고사시켜 대량해고 등의 사태가 벌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산업계 및 학계에서는 국내산업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외국인 투자정책의 법제화로 국내산업의 피해를 방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

박명재 국회철강포럼 대표의원은 “주요국들은 철강산업과 같은 국가 기간산업 및 전략산업에 대하여 다양한 이유로 외자투자를 제한하고 있는데 반해 국내법의 경우 그 근거가 미약하다”고 지적했다. /양성운 기자 ysw@

삼성전자, 국내 팹리스업체와 동반성장 다짐

파운드리 포럼 2019 코리아

삼성전자가 국내 팹리스업체와 상생을 다짐했다. 삼성전자는 3일 서울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파르나스 호텔에서 ‘삼성 파운드리 포럼 2019 코리아’를 개최했다.

파운드리 포럼은 삼성 파운드리의 최신 기술 현황과 솔루션을 공유하고 협력관계를 강화하는 자리다. 2016년부터 매년 전세계를 돌며 열렸다.

올해에는 500명 이상 팹리스 고객과 파트너가 참석했다. 전시 부스도 전년

보다 2배 이상 늘어 ‘반도체 비전 2030’에 대한 관심을 증명했다.

삼성전자는 포럼에서 인공지능(AI)과 5G, 전장 등 분야와 극자외선(EUV) 공정, 저전력 FD-SOI 등 폭넓은 파운드리 포트폴리오를 소개했다. 팹리스 고객에 3나노 GAE 공정 설계키트도 배포했다.

삼성전자 파운드리사업부 정은승 사장은 기조연설에서 “삼성전자는 반도체 불모지에서 사업을 시작해 역경을 딛고 업계 1위에 오른 경험이 있다”며 “파운드리 분야의 최고를 향한 여정도 쉽지

않겠지만 난관을 헤치고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게 관심과 응원을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

특히 삼성전자는 국내 팹리스업체를 향한 지원 의지를 강조했다. 8인치와 12인치 웨이퍼 등 다양한 고객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것. 7나노 이하 EUV 기반 초미세 공정도 적극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또 삼성전자는 반도체 디자인하우스와 설계자산(IP), 자동화 설계 툴(EDA) 등과 관련해서도 팹리스와 협력을 확대할 예정이다. /김재웅 기자